

복강경 보조 위절제시 6번째 투관침의 유용성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김영우, 백용해, 김찬규, 최일주, 송호준, 이종석, 노지윤, 이준호, 류근원, 배재문

(목적) 지금까지의 조기 위암 환자에서 복강경 보조 근치적 위절제술은 5개의 투관침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너무 많은 투관침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고, 환자에게 창상이 늘어나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이 희석될 우려가 있고, 술자와 제1조수가 2개씩의 투관침을 사용하므로 투관침의 개수를 늘리는 경우 한 명의 보조자가 더 필요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복강경 위 절제술은 수술 범위 및 각도가 다양하고 넓어, 고정된 투관침의 위치는 술자에게 불편한 자세를 강요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간의 견인을 위하여 한 개의 투관침을 제1조수가 사용하면, 이후에는 제1조수가 단지 한 손만으로 술자를 도울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저자들은 복강경 위아전 절제술에서 기존의 5개의 투관침과 더불어, 한 개의 투관침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1월 이후로, 6개의 투관침을 이용하여 복강경 위아전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5개의 투관침으로 수술을 진행하다가, 좌측 대망 절제가 완료되면, 앞으로 절개를 가할 우상 복부에 가상의 6 cm의 선을 표시하고, 이 절개선 상의 한 지점에 5 mm의 절개를 가한 후, 재사용 가능한 5 mm 투관침을 삽입하였다. 우측 대망 절제시, 십이지장 외측의 Kocher maneuver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을 견인할 때 이 여섯 번째 투관침에 삽입한 Snake retractor를 사용하였다. 우위동맥의 처리가 완료되면, 술자의 왼손을 이 여섯 번째 투관침으로 옮기고, 원래 술자의 왼손이 사용하던 투관침으로 snakertractor를 옮겨 간의 견인을 시행하였다. 술자가 느끼는 수술의 난이도, 불편감의 정도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창상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이 더 증가하지 않았다. 수술 기구 비용 또한 5 mm 재사용가능 투관침을 사용하였으므로, 증가하지 않았다. 단, 제3의 조수로서 간을 견인하는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술자의 기술적 평가는, 제1조수가 시야를 더 잘 확보해 줄 수 있게 되어, 특히 제11번 림프절 절제, 1번 및 3번 림프절 절제시에 특히 이전에 비해 더욱 용이하였다.

(결론) 복강경 보조 위아전절제술시에 한 개의 투관침을 더 사용함으로써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술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더 많은 증례의 분석을 통해, 유용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